

“검찰, 개혁 조치 순순히 응하라”…서초동 촛불 최후통첩

■ 검찰개혁 마지막 집회

정치권에 법안 신속 처리 촉구

“가짜뉴스 그만” 언론에도 경고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연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지난 12일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적격 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는 것은 오만·패륜이며,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이날 열린 ‘제9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 주최 측은 ‘최후통첩문’을 통해 “검찰은 개혁 조치에 순순히 응하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한국당은 국론 분열을 멈추고 20대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권력 탐닉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고 정론직필에 나서라. 조선

일보는 가짜뉴스와 매국행위를 중단하고 폐간하라”고 주장했다. 통첩문을 발표한 뒤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주최 측은 “공식적인 참석 인원을 일절 박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누에다리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1.7km, 서리풀터널에서 교대역 사거리까지 1.6km 구간 도로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누에다리부터 교대입구 교차로(삼거리), 대법원 정문부터 교대역 사거리까지 도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주를 끝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추후 일정은 잡지 않은 상태다. 집회를 주도하는 ‘개짜울국민운동본부’(개국본) 관계자는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다음 주라도 촛불은 다시 켜질 것”이라며 “잠정 중단일 뿐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시민발언과 공연 등을 이어가다 오후 9시40분께 해산했다.

누에다리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는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30분

부터 서울역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집회’를 연 데 이어 이후 오후 4시부터는 서울 성모병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2부 집회를 열었다. 서울성모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앞까지 이르는 7개 차로 약 250m를 차지한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반포대교 남단 고속터미널역 사거리 600m 구간을 행진했다가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열고 오후 7시10분께 해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초역 주변 집회 때문에 서초대로, 반포대로를 순차적으로 통제했다. 이날 서초역 인근에 94개 중대 5000여명 규모의 경찰력을 투입한 경찰은 양쪽 시위대 사이에 폴리스라인을 두껍게 치고 반포대로 옆 통행로에도 1~2m 간격으로 인력을 배치해 충돌을 막았다. SK,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집회에 많은 인원이 몰려 통신 장애가 생길 것에 대비해 현장 인근 곳곳에 중계기를 임시로 설치했다.

／연합뉴스



광주 금남로 검찰 개혁 촉구 촛불집회

지난 12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거리에서 검찰 개혁과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려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 검찰개혁 협의…특수부 광주·서울·부산만 남기고 폐지

법무부 오늘 개혁안 발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특히, 특수부 축소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 3개 지역의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14일 세부 내용인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다.

한 참석자는 “서울, 부산, 광주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고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법무부가 기존에 발표된 서울중앙지검 외에 부산과 광주에 특수부를 남긴다고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특수부 명칭은 법무부가 제시한 ‘반부패수사부’ 대신 다른 명칭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반부패수사부로 정하면 소환되는 사람이 부패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수사 범위와 관련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특수부 7개 중 서울중앙지검 등 3

개 검찰청을 뺀 4곳을 폐지하고,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수부의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발표안은 모레(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오늘의 검찰 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거운 이 때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부수석, 김조원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

“세계적 공대” vs “졸속 공대”

산자위 국감서 한전공대 설립 공방

한국전력공사 국경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종갑 한전 사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핵심시설로서 한전공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의 지원을 당부했다.

지난 11일 한전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경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자 찬반 논리를 보강할 자료 제출을 요청해 신경전을 벌였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주지역 시민단체가 제작한 ‘한전공대! 국가발전 원동력’이라 적힌 인쇄물을 보이며 “국감장에 오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들고 있던데 사장이 시킨 것이냐”고 김종갑 사장에게 묻자 김 사장은 곧바로 “아니다”고 답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훼방은 명백한 정치공세이자,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근거 없는 만지”라며 “한전공대는 세계적인 에너지 공대로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짚어줄 대한민국 신산업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박병계 의원은 “지방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광주와 호남 등 지역마다 ‘실리콘밸리’가 필요하다”며 “광주와 기원에는 에너지 관련 학과가 없기에 한

전공대는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질의 뿐만 아니라 보충 질의에서도 한전공대 반대 공세를 이어갔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졸속 한전공대’라고 지칭하고 “2022년 개교 목표라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하려도 전체가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한전공대 5대 불가론’을 내세우며 “한전 사장은 도끼를 지니고 왕에게 올리는 지부상소(持斧上疏) 해야 한다”며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한전공대는 사립대학이니까 한전 돈으로 만들라”고 말했고 윤완홍 의원은 “국민이 내는 전기세에 포함된 전력기금을 대학설립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야당 의원의 공세에 단호한 어조로 응수했다. 그는 “미국 코넬텍과 같이 번다려는 성공모델 대부분이 ‘작지만 강한 대학’이기에 학령인구 감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2030년에는 1조 정도 R&D(연구개발)가 필요한 이유에서 대학 투자는 손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공기업인 한전이 나서서 해야 할 일 아니다”는 막대한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앞으로 특별법에 의한 국립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맞대응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설업자 윤중천 “윤석열 만난 적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 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씨는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이 없고 윤 총장을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변호를 맡은 정강한 법무법인 푸르메 대표변호사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윤씨 입장을 공개했다. 정 변호사는 한겨레 보도 당일인 전날 오후 윤

씨를 접견했다. 윤씨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립대’ 의혹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 치상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윤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며 “(윤 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하고 다이어나 명함, 핸드폰에도 윤 총장 관련된 것은 없

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진상조사단 검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친분 있는 법조인을 (검사)가 불러와 몇 명 검사 출신 인사를 말해줬다”며 “윤 총장은 말한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

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러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검찰이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국경감사에서 “당시 수사 기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을 본적은 없다”며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지난 11일 “당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한국표준협회 선정

2019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2018 KS-CQI

콜센터품질지수 여행사 부문 1위 수상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인증

세계권위 여행전문지 TTG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9년 연속수상

48년의 노하우가 만든 롯데관광만의 혜택!

① 특급(4성급)호텔 5박으로 편안한 숙면과 휴식

② 남북섬 이동 시, 뉴질랜드 국적기 에어뉴질랜드 항공 이용

③ 개인용 해설 수신기 제공 (목적상품 예약시)

④ 전문인솔자 동행, NO음선&NO기사/가이드경비 (목적상품 예약시)

타스만 빙하+호비튼 마을+데카포돈천 9일

품격 4,090,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10/ 크라이스트처치(3)/퀸스타운(1)/로토루아(2)/오클랜드(1)

11 8대 특식(양고기 BBQ, 청정우 스테이크 등)

12 [타사비교 필수] 전문인솔자 동행, 남북섬 스파 2회 제공

NO기사/가이드 경비 & NO음선, 크라이스트처치 트램

밀포드사운드+마운트루크 트래킹 9일

정통 3,590,000부터

+US\$80 | 선택관광 없음

10 오클랜드(1)/로토루아(2)/퀸스타운(1)/크라이스트처치(3)

11 4대특식(양고기 BBQ, 청정우 스테이크, 연어회, 마오리족 향이 디너)

12 타우포, 레인보우 스프링스 자연공원, 와이키투푸 거든 트래킹

무안 출발

하이난 JEJUair 5/6일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토(6일) 출발

인원 539,000부터

US\$40(5일),50(6일) | 선택관광 없음

● 하이난(3/4)/기내박 ● 전 일정 준 5성급 호텔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이용

● 약 \$140상당 음선 관광지 포함 (아름다운관투어 등)

장가계

장가계 직항으로 편안한 항공 이동 5일

인원 849,000부터

US\$40(5일),50(6일) | 선택관광 없음

11/11,5,8,12,15,19,22,26,29 12/3~ 매주 화(4일),금(5일) 출발

● 장가계(3/4) ● 전 일정 일급 호텔, 보봉호유람선

● 백룡 엘리베이터(편도), 원가계(전하제일고, 미혼대)

다낭 (2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인원 549,000부터

US\$40 | 선택관광 없음

10/17,18,19,20,21,22,23,24~ 매일 출발 ● 다낭(3)

● 전 일정 준특급 호텔 숙박 (다나시티 호텔or동급)

● 바나나 국립공원, 다낭시내관광(대성당, 까오다교 사원)

세부 (NO탑&NO소핑&아동반값)

JEJUair 5일

인원 549,000부터

US\$40 | 선택관광 없음

10/22,23,25,26,30,31 11/5,12,19,26~ ● 세부(3)

● 전 일정 5성급 리조트 숙박 (두치타니 리조트or동급)

● 호핑투어, 스톤사자 1시간, 체험다이빙 강습 1회

코타키나발루 JEJUair 5일

인원 849,000부터

US\$40 | 선택관광 없음

10/31 11/7,14,21,28 12/5,12~ ● 코타키나발루(3)

● 전 일정 준특급 호텔 숙박 (다나시티 호텔or동급)

● 탄중아루 리조트 3박, 호핑투어, 섀넌 반딧불 투어

가경포해안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ALL 포함] NO기사/가이드 경비, NO음선, NO소핑

● [사선예약 할인 프로모션] 10/30일까지 예약자 한정, 1인 5%할인(단, 현금결제 조건), 전 일정 준 5성급 호텔

가경포해안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사선예약 할인 프로모션] 10/30일까지 예약자 한정, 1인 5%할인(단, 현금결제 조건), 전 일정 준 5성급 호텔

● [ALL 포함] NO기사/가이드 경비, NO음선, NO소핑

가경포해안역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기사경비

● [사선예약 할인 프로모션] 10/30일까지 예약자 한정, 1인 5%할인(단, 현금결제 조건), 전 일정 준 5성급 호텔

● [ALL 포함] NO기사/가이드 경비, NO음선, NO소핑